



CONTENTS

< 요약 >

1. 2015년 우리나라 경제전망
2. 2015년 대전충남 경제전망
3. 충남 GRDP 추세
4. 충남 GRDP 실증전망
5. 요약 및 결론

Reborn
ISSUE

울산광역시연구원

2015년 충남 GRDP 전망 (GRDP 100조 시대의 새로운 도약)

김양중

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, kyj0509@cdi.re.kr

요약

- GRDP(지역내 총생산) 예측결과 충남은 2015년에 5.5% 성장이 예상되며, 2015년 충남 GRDP는 106조로 100조를 넘어서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
- 지역내 총생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시도는 17개 시도(세종시 포함) 중에서 서울과 경기뿐으로 충남에게는 의미 있는 한해라고 할 수 있음
- 충남 도정은 지난해 말 3대 행복(행복한 성장, 행복할 권리, 행복한 환경)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고, 이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'행복한 성장'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그동안 충남이 양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면, 이제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때임
- 그동안 충남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, 대중국 교류 확대, 지속적인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, 이제 한번 도민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
- 충남은 도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, GRDP 100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비전 수립이 필요
- 충남은 충남 경제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성장추세를 이어가면서도, 100조 시대에 걸맞도록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
- 충남이 역량을 모아 노력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것임

2015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◀

※ 본 절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‘2015년 경제전망’을 요약 및 재편집하여음

<2015년 우리나라 경제전망>

항목		경제전망
경제성장	실질 GDP	연간 3.8% 성장
	민간소비	연간 3.0% 증가
	설비투자	연간 5.8% 증가
	건설투자	연간 5.2% 증가
	지식재산생산물투자	연간 7.1% 증가
고용 물가	취업자	45만명 증가
	소비자물가	연간 2.0% 상승
통상	수출(통관)	연간 3.7% 증가
	수입(통관)	연간 3.2% 증가
	경상수지	820억달러 흑자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

1) 경제성장

● 실질 GDP 연간 3.8% 성장예상

-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, 유가하락, 재정지출 확대·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실질 GDP는 3.8% 성장이 예상됨
- 수출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나, 가계부채 부담,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, 엔화약세 등은 성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

● 민간소비는 연간 3.0% 증가 예상

- 고용여건·복지지출 확대 등이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특히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있어, 향후 소비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아울러 부동산시장 회복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, 가계부채 부담,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은 소비증가의 제약요인

● 설비투자는 연간 5.8% 증가 예상

-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되고,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투자수요 확대가 예상
- 또한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주요기업의 신규투자 계획 등도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
- 특히 전기·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중국과의 경쟁심화, 유가하락 등으로 석유화학·조선 등의 투자는 제약

● 건설투자는 연간 5.2% 증가 예상

- 주택건설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 정책효과 등으로 향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며, 주택거래량·가격 회복세, 미분양 주택 감소 등도 향후 주택 투자에 긍정적
- 다만, 건설업계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, 최근 준공물량 증가 등은 회복세 제약 요인이며,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상업용건물 공실률 확대, 혁신도시 청사신축 종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

●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간 7.1% 증가 예상

- 정부 R&D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, 창업초기 중소기업 R&D 세액 공제 확대, 수익성 개선 전망 등 감안 시 민간 R&D도 증가가 예상
-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등도 긍정적 효과로 작용

2) 고용 및 물가

● 취업자 45만명 증가 예상

- 정부의 고용률 제고노력과 더불어, 경기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인력 확보가 지속되고, 창업도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기업의 노동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다만, 대외 불확실성 확대, 조선·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등 하방요인 상존

● 소비자물가는 연간 2.0% 상승 예상

-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개선과,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확대
- 특히 담배가격 인상 효과로 물가상승률 0.6%p 상승

3) 통상

● 통관기준 수출은 연간 3.7% 증가, 수입은 연간 3.2% 증가 예상

- 수출의 경우 대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, 인도 등 신흥국 경기의 개선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'14년(2.7%)에 비해 개선된 3.7% 증가 전망
- 수입의 경우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개선되겠으나, 유가하락 영향으로 수출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3.2%('14년 2.5%) 증가 전망

● 경상수지는 820억달러 흑자 예상

- 상품수지의 경우 내수 개선 등으로 흑자 규모는 감소하겠으나, 유가 하락이 감소폭을 제한
- 상품외수지의 경우 운송·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, 건설서비스,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에 '14년 수준 적자가 예상

2015년 대전충남 경제전망 ◀

※ 본 절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도자료 ‘2015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’을 요약
및 재편집하여음

<2015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>

항목	경제전망
민간소비	완만한 증가
설비투자	전년수준 증가
건설투자	증가폭 확대
상품수출	완만한 증가

자료: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도자료

1) 민간소비

● 가계의 실질구매력 확대,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등에 힘입어 완만한
증가세를 나타낼 전망

-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, 지자체의 복지예산 증액 등도 소비 증가에
기여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소비심리 회복 지연,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
가능성이 있음

2) 설비투자

- 글로벌 경기개선,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전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-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도 기업의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
 - 다만 투자심리 회복 지연, 제조업 유희설비 등이 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소지
 - 업종별로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산업 등에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석유 화학·제품 등은 대규모 설비투자 종료 등으로 축소될 가능성

3) 건설투자

- 주거용 건물 및 토목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
 - 주거용 건물은 착공면적의 꾸준한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비주거용 건물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*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토목은 SOC 예산 증액**, 신규 발전시설 건설 등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

4) 상품수출

● 세계 교역 신장세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

- 세계교역 신장세가 확대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수출 전망도 호전
- 다만 가공 및 중계무역 부진의 지속 등이 수출 증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
- 품목별로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기계류 등이 호조를 보이겠으나 자동차, 철강 등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
- 수출대상국별로는 중국 및 일본 등은 각각 성장세 둔화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미국, 유럽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● 이상과 같은 수요부문별 전망을 감안해 볼 때 2015년중 대전충남지역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

- 제조업 생산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서비스업 활동도 소비 증가 등으로 회복

● 성장률은 수요부문별 전망 및 GRDP 대비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수준을 1%p 이상 상회할 전망

-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역대 성장세(2000~2007년 연평균 7.1%)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

충남 GRDP 추세 ◀

<표 1> 충남 GRDP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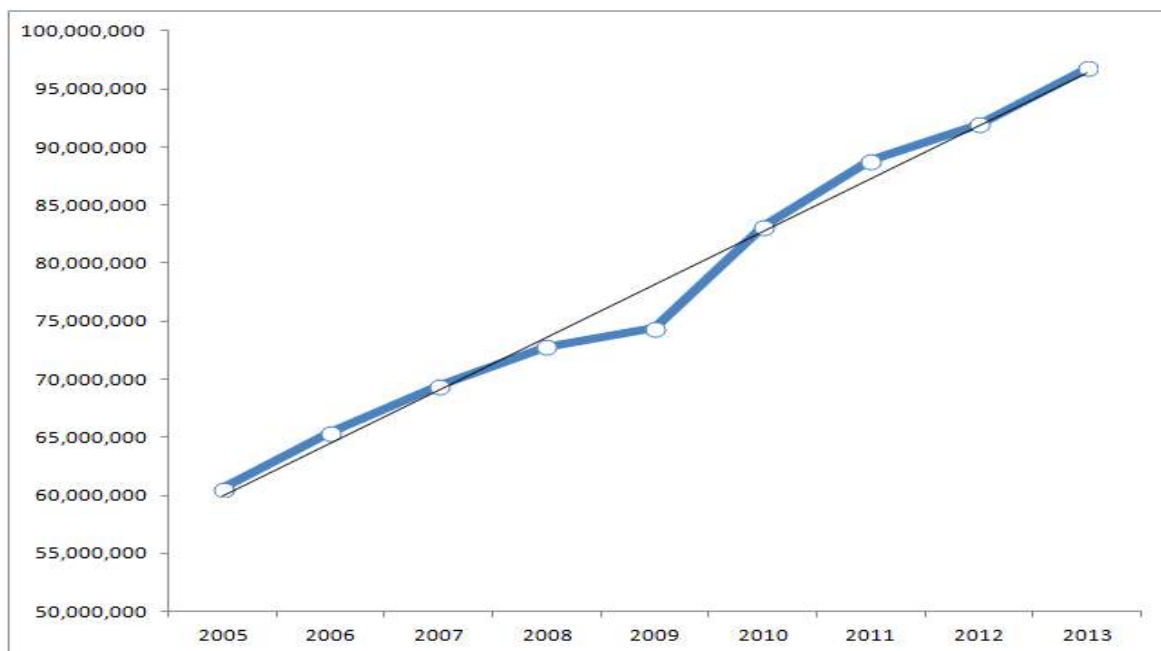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충남 GRDP	전년대비 증가율
2005	60,617,729	-
2006	65,465,173	8.0
2007	69,417,714	6.0
2008	72,825,553	4.9
2009	74,400,993	2.2
2010	83,166,818	11.8
2011	88,815,200	6.8
2012	91,988,780	3.6
2013	96,826,423	5.3

자료: 통계청/지역계정/지역소득[2010년 기준(연쇄)]/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

[그림 1] 충남의 GRDP 추세

(단위: 백만원)



- 2010년 11.8% 성장을 고점으로 하여 2011년에는 6.8%, 2012년에는 3.6%까지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5.3% 성장하였음
- 충남은 2012년까지 저성장기조에서 다소 회복하고 있는 모습임
- 16개 시도의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충남의 2013년 성장률은 충북에 이어 2위의 성적임
- 충남이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충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음

<표 2> 시도별 GRDP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시도별	2013년 GRDP	전년대비 증가율(%)	증가순위
서울특별시	308,556,237	1.4	12
부산광역시	67,852,325	1.4	12
대구광역시	42,511,159	3.8	5
인천광역시	63,655,333	2.4	10
광주광역시	28,593,976	3.4	6
대전광역시	29,474,876	1.4	12
울산광역시	69,965,768	2.4	10
경기도	296,244,264	4.3	4
강원도	33,051,019	2.7	9
충청북도	45,917,380	7.4	1
충청남도	96,826,423	5.3	2
전라북도	39,108,772	3.4	6
전라남도	62,131,697	-1.6	16
경상북도	85,487,732	0.7	15
경상남도	93,537,662	3.2	8
제주도	12,633,870	4.9	3
전국	1,375,552,868	2.7	-

자료: 통계청/지역계정/지역소득[2010년 기준(연쇄)]/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

충남 GRDP 실증전망 ◀

1) 분석방법

- 충남의 GRDP 예측은 ARIMAX(Auto-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tra)모형을 이용하여 분석
 - 예측모형은 크게 경제모형과 시계열 예측모형으로 구분
 - － 경제모형은 경제변수에 수치를 주어 정량화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설정한 후 경기예측모형을 만들어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
 - － ARIMA(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)모형은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회복시킨 후, 자기변수의 과거값으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AR과정과 모형추정 잔차의 이동평균 함수형태로 표현되는 MA과정의 결합함수로 추정해 내는 방법론임
 -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개별 경제변수를 감안하여 ARIMA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ARIMAX 모형을 통해 미래추세를 파악하고자 함

2) 분석자료

- 기존연구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2005년 기준년가격을 기준으로 성장추세를 예측하였음
-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년가격(연쇄)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여 성장추세를 예측
- 따라서 기존연구 결과와의 실질적 비교는 어려움
- 다만 이용 가능한 자료가 2005년부터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웠으며, 향후 통계청에서의 과거 시계열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
- 본 연구에서는 충남 GRDP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순수출, 민간소비, 건설투자,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였음

3) 분석결과

<표 2> 충남도 GRDP 예측

(단위: 백만원)

GRDP	106,039,454	95% Confidence Limits	
		103,952,023	108,126,884
성장률	(5.5%)	(3.4%)	(7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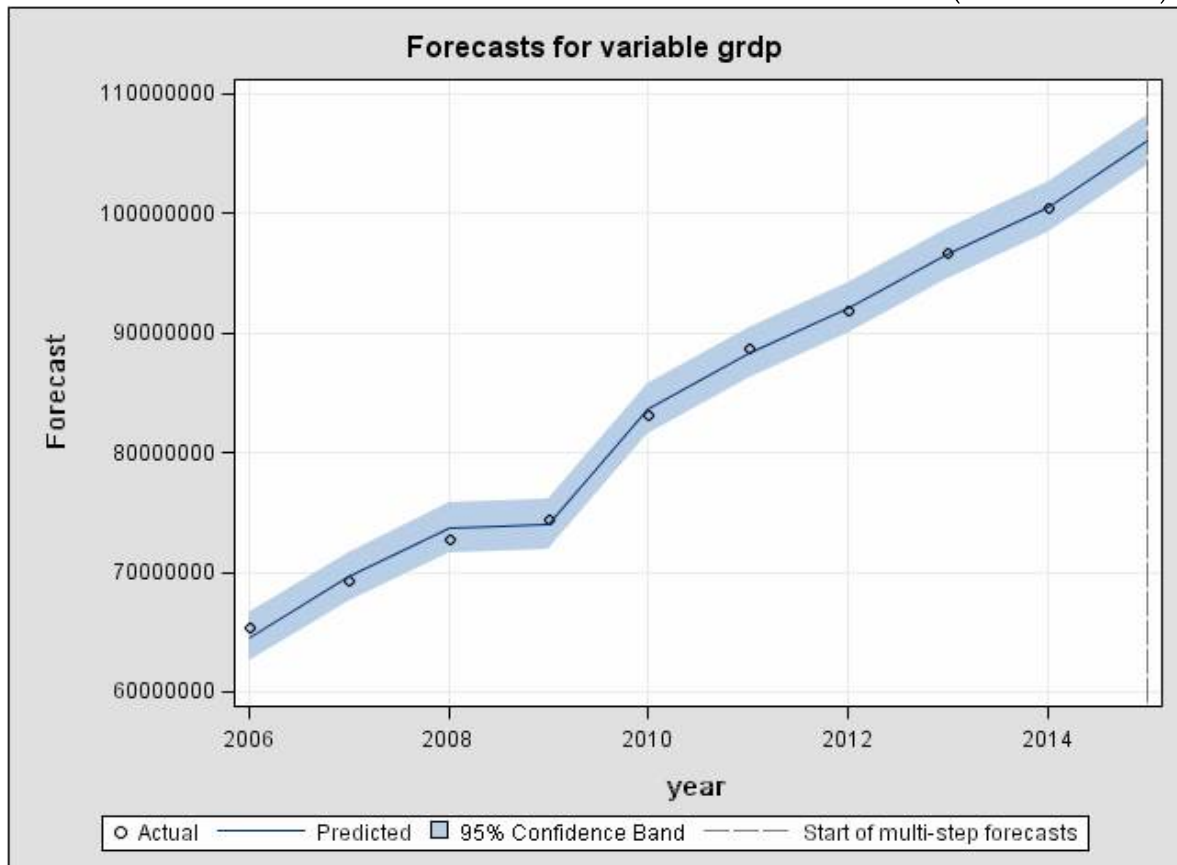
- GRDP 예측결과 충남은 2015년에 5.5% 성장이 예상되며, 2015년 충남 GRDP는 106조로 100조를 넘어서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

○ 지역내 총생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시도는 17개 시도(세종시 포함) 중에서 서울과 경기뿐 임

○ 따라서 2015년은 충남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여겨짐

[그림 1] 충남도 GRDP 추이

(단위: 백만원)



○ 다만 95% 신뢰구간 하에서 살펴보면 충남의 성장이 3.4%대에 머물 수도 있으며,

○ 노력여하에 따라 7.6%의 성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남도의 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성장률을 보다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짐

-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규모는 100조를 넘어서 106조대의 총생산규모를 이룩할 것으로 여겨짐
- 충남 도정은 지난해 말 3대 행복(행복한 성장, 행복할 권리, 행복한 환경)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고, 이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‘행복한 성장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그동안 충남이 양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면, 이제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때임
- 그동안 충남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, 대중국 교류 확대, 지속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, 이제 한번 도민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
- 충남은 도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, GRDP 100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비전 수립이 필요
 - 충남은 충남 경제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성장추세를 이어가면서도, 100조 시대에 걸맞도록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
- 충남이 역량을 모아 경제성장에 노력한다면 충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것임